

# 전사노사협의회 소식지

발행인 근로자위원 대표 이현우 / 발행일 2026년 6월 30일(화) / 배포확인 금속노조 만도지부 / 제 01호

## 2026년 2/4분기 1차 전사노사협의

- 장소 : 평택사업본부 본관 2층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10시 ~
- 참석 : 이현우 대표 외 11명, 김현욱 대표 외 11명
- 차기 노사협의 : 실무협의

### 2/4분기 전사 노사협의 근로자측 안건

구분	안건	비고
1	의료비 지원제도 지급 기준 해석 건	
2	작업복 질 개선 건	
3	퇴직연금 DC형 도입 건	
4	출장비 인상 건	
5	식당 업체 변경 건	
6	주택융자금 적체 해소 건	
7	2조 반차제도 도입 건	
8	장애인 자녀지원금 상향 조정 건	

### 2/4분기 전사 노사협의 회사측 안건

구분	안건	비고
1	복지카드 도입 건	

# 첫 단추를 잘 끼워야

## - 첫 공식석상 대면, 맹목적인 갈등 보다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원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로 전환 후 공식적인 첫 대면자리인 전사노사협의 상견례에서 이현우 지부장은 만도지부 14기 집행부의 기초를 밝히며 합리적이고 실력있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길 주문했다. 맹목적인 대립이나 갈등 보다는 대화나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 - 모든 안건 협의 안될 이유 없어

근로자측이 제시한 8가지 안건 모두 만도 구성원들의 삶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한 노사 협의 때마다 상정되는 케케묵은 숙제이기도하다. 어느 안건 하나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없고, 협의 안될 이유가 없다. 특히 퇴직연금 DC형 도입 건은 벌써 수차례 노사협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사안이고, 퇴사한 직원의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다는 회사측의 명분은 빛을 잃은지 오래다. 이에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은 DC형 추가 도입에 대한 연서명과 선호도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 <양측 대표 인사말>

이현우 근로자위원 대표 : 금속노조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뜻깊은 노사협약에 함께해 주신 사측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비록 사무직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만도지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깃발 아래 14기 집행부를 출범한 이후, 노사가 처음으로 마주 앉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산별 노조 전환을 두고 안팎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교차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14기 집행부의 기초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모적인 대립이나 맹목적인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밑바탕에 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오늘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준비한 내용들도 바로 이러한 기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의료비 복지제도의 모호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 현장 조합원들이 매일 입고 땀 흘리는 작업복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퇴직연금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 등등. 이 안건들은 결코 무리한 요구나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매일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과 직결된 소박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만도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열어가는 훌륭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측 위원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원만하고 건설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욱 사용자위원 대표 : 먼저 보컬 선거를 통해 새롭게 당선되신 근로자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동시에 잘 부탁드립니다. 매번 노사협의 때마다 말씀 드리지만, 노사협의회 근본 취지에 맞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로자측이나 사용자측이나 양측이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복지라던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여 좋은 합의점을 추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